



시민속으로 2017 / 8월 5주차

## ■ 연구원 주요일정

○ 08월 28일(月) : 주간회의

## ■ 연구원 소식

### ○ 연구원 회원의 날 및 개원 기념 행사 안내

- 엇그제 개원 10주년 행사를 치룬 것 같건만 어느새 개원 11주년이 다가왔습니다. 연구원이 문을 연지 정확히 11년이 되는 오는 **"9월 2일(土)~3일(日) <1박 2일>"**에 걸쳐 회원의 날과 개원 11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원의 날은 장소는 **"전북 완주 초남이 성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 해 시설을 증축한 초남이 성지를 찾아 사업을 마친 하태진 신부의 헌신을 직접 목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공동체 경기 및 베품시장, 애장품 경매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디 많은 회원이 함께하여 경향 각지의 좋은 기운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빌겠습니다.

행사 관련한 제반사항은 추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연구원에서 현재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 전화(063-286-3005), 최우영 사무국장(010-6275-0409), 이동학 행정실장(010-7137-6418)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회원의 날 및 개원 11주년 행사 일정표

날짜	시간	내용	날짜	시간	내용	
9월 2일 (土)	14:00 ~14:30	· 준비 및 등록 (방명록 작성, 이름표 배부 등)	9월	08:00 ~09:00	· 아침식사	
	14:30 ~15:00	· 집합 및 숙소배정 · 보물찾기 시작(19시까지)		4일 (日)	09:00 ~10:00	· 초남이 답사
	15:00 ~17:00	· 회원의 날 공동체 행사			10:00 ~11:00	· 경품 추첨
	17:00 ~18:00	· 개원 10주년 기념식	11:00 ~		· 귀가	
	18:00 ~19:00	· 저녁식사				
	19:00 ~20:00	· 애장품 경매				
	20:00 ~21:00	· 뒤풀이 - 풍등날리기				
21:00 ~	· 자유시간					

※ 행사장소 : 초남이 성지(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14-1)

※ 일정은 날씨나 현지상황에 따라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연(時緣)” 원고 및 표지사진 모집 안내 <상시 모집 중>

- 2017년도 시연의 표지에 연구원 사무국에서 촬영한 사진이 아닌 회원의 손때가 묻은 사진을 사용하여 의미를 살리고자 합니다. 연구원 기관지 시연의 표지로 장식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사진이 있으시면 메일이든 우편이든 보내주십시오. 아울러 원고도 함께 모집(특정 주제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싶은 것으로)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정되신 회원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 ○ 전북의병사 자료집 발간 전체회의

: 8월 24일(木)에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에서 우리 연구원이 진행하는 “전북의병사 자료집 발간 착수보고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사업진행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정기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 ○ 제5회 한·중 역사가 포럼

- 제5회 한·중 역사가 포럼 '서로의 사료로 본 한·중 역사' 가 8월 26일 중국 연변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와 중국의 연변대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연구원의 초대 원장님이셨던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변주승 상임이사가 참석하여 각각 종합토론과 사회를 맡아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 ○ 전북지역 3·1운동 사적지 답사 안내

지난 학술대회와 공동사업인 전북지역 3·1운동 사적지 답사가 **9월 16일(토)**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답사는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광복회 전북지부와 우리 연구원이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작자소개

맹호연의 자는 역시 호연(浩然)으로, 지금의 호북성(湖北省)에 해당하는 양주(襄州)의 양양(襄陽)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후대에 ‘맹양양(孟襄陽)’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의 가계는 자세하지 않은데, 양양의 남쪽에 장원이 있어 그의 가족이 이곳에 살았다. 그에게는 세연(洗然)이란 형에다가 형(馨)과 악(諤)이란 두 동생이 있었다.

### ■ 작 품

宿桐廬江 寄廣陵舊遊(숙동려강 기광능구유) 동려강에서 묵으려 광릉의 옛 친구들에게

山暝聽猿愁(산명청원수)	산 어둡자 시름 깊은 원숭이 소리 들리고
滄江急夜流(창강급야류)	맑은 강은 한밤에도 급히 흐른다
風鳴兩岸葉(풍명랑안섭)	양 언덕의 잎새를 바람이 울게 하며
月照一孤舟(월조일고주)	쓸쓸한 배 한 척을 달빛이 비추는데
建德非吾土(건덕비오토)	건덕은 내 고향이 아니라서
維揚憶舊遊(유양억구유)	유양의 옛 놀이를 그리며
還將兩行淚(환장량항루)	두어 줄기 흐르는 눈물 가져다
遙寄海西頭(요기해서두)	저 멀리 바다 서쪽에 띄워 보낸다

### ■ 감 상

729년 실의에 빠진 맹호연은 장안을 떠나 이곳저곳을 유람하다가 732년 5월 양양으로 돌아왔다. 이 긴 여행에서 맹호연은 많은 시인들을 만나 시를 짓고 견문을 넓혔다. 도교(道敎)에 일시 관심을 쏟기도 하였다. 위의 작품은 이런 과정에 지어졌다.

## ■ 역사속의 오늘

### ○ 맥아더 포고령 - 1945년 9월 7일

1945년 8월 15일 일왕의 항복 선언으로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 38선 이남에 들어온 미군은 분단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했다. 4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미군은 전투기의 엄호 아래 장갑차를 앞세우고 완전무장을 한 상태였다. 많은 인천시민들은 미군을 환영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의 앞에 나타는 것은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 패망한 일본의 경찰병력이었고 그들은 '경비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인천시민들에게 총탄을 쏘았다. 이 사건으로 권병권 씨와 이석구 씨가 일본 경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고 10여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어째서 해방된 인천 시민이 패망한 일본 경찰의 총탄에 맞아 죽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는가. 그 이유는 태평양 미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가 조선 총독 아베에게 미군이 상륙할 때까지 일제가 치안을 유지하고 행정기구를 그대로 존속시키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일본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민중들의 정치활동과 시위, 집회를 탄압하였으며 심지어 시위대에 기관총을 발포하기도 했다.

미국은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 경찰의 발포를 두둔하였다. 9월 8일, 미군 진주과정에 사망한 유족들은 발포한 일본경찰을 미군정에 고소했다. 그러나 군사재판에서 미군은 '일본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넘은 인천시민들에 총격을 가한 것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미군의 인천 상륙과 당일 발생한 총격 사건은 우리민족 앞에 펼쳐질 운명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상징이었다.

38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의 역할은 9월 7일, 미군이 발표한 포고문 제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 에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천황과 일본정부의 이름으로, 또한 일본제국 총사령부의 명령 및 이름을 서명한 항복문서가 규정하는 바에 의해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복종이 요구된다.

본관은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으로서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써 이에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및 조선 인민에 대한 군정을 펴면서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

...

제2조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인,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또는 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제반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제4조 제군(諸君)의 재산소유 권리는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적당한 직업에 종사하라.

...

제6조 앞으로 모든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및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될 것이며, 주민이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명기하게 될 것이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1945년 9월 7일  
태평양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 육군대장 '더글라스 맥아더'

미군은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 한다는 맥아더의 포고령을 통해 스스로를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규정했다. 미군정은 인민위원회 건설을 통해 자주 독립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여운형 등 우리 민족의 활동을 제3조,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 로 규정하여 완전히 부정하였다.

당시 해방 조선에는 이미 독립정부기관이 건설된 상태였다. 1944년 건국동맹을 결성한 여운형은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8월 15일 아침, 엔도 정무총감과 회담을 통해 행정권 인수 의사를 밝혔다. 총독부는 여운형이 제시한 조건들을 주저없이 수락하였으며, 여운형은 그날 저녁 건국동맹을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조직하였다. 실제로 8월 17일 조선총독부는 치안유지권, 방송국 등 각 언론기관 등을 건준에 일괄 이양하였다.

건준은 전국에 걸쳐 지부를 건설하였고 후에 인민위원회로 전환하였으며 건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인민위원회를 건설하는 지역도 많았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사실상 자기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였으며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그 결과 해방 후 한 달도 안 된 9월 6일 전국에서 모인 천여 명의 대표들은 서울에서 ‘조선인민공화국’ 창건을 선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당시 우리 민족은 신속하게 일제 식민통치를 붕괴시키고 국가기구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미군은 일제 식민통치기구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이를 군정통치에 이용하였다.

미군은 일제 잔재를 소탕하기는커녕 오히려 포고령 제2조에 의해 해방과 더불어 줄행랑을 쳤던 친일파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며, 제4조를 통해 우리 민족의 피로 얼룩진 민족 반역자와 일본인의 재산까지 보장해 주었다.

일제 식민통치기구를 그대로 이어받은 미군은 관리들도 일본인, 친일파를 그대로 유임시켰고 나중에 자문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법률도 일제 강점기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북위 38도선 이북의 소련군과 이남의 미국군. 그로 인한 분단은 72년이 지난 오늘도 진행형이며 이 땅의 민인들은 1945년 9월 7일 미 육군 대장이 발표한 포고문의 그늘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